‘전기소매업’ 도전하는 日스님들

7개 종단 스님 모여 ‘테라 에너지’ 창립

박영빈 객원기자

재생가능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가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가운데, 일본에서 불교계 전기회사가 탄생했다. 일본의 7개 종단 스님들이 뜻을 모아 전기소매업 주식회사 ‘테라 에너지(TERA Energy)’를 창립했다고 지난 10월 25일 산케이 신문, 니혼케이자이 신문, 교토신문 등의 현지 언론들이 특별 보도했다.

일본에선 지난 2016년 4월부터 전기소매업이 자유화되면서 지금까지 약 500곳 이상의 업체가 등록했다. 대부분이 가스 공급회사, 석유회사 등 자원 관련회사들이 설립한 회사다. 그러나 이번에 설립된 테라 에너지는 사장부터 운영진 모두 스님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사장인 타케모토 류고(40) 스님은 교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왜 절에서 전기사업을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스님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찰들의 경영난은 물론 사찰과 지역민의 연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사찰의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회사 설립취지를 밝혔다.

테라 에너지는 ‘지역과 사찰간의 순환기능 활성화’ ‘불교의 가르침에 근간한 상업활동의 실천’ ‘지구환경보존, 탈탄소에너지사회 실현을 위한 일본불교적 모델확립’ ‘불교를 배경으로 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회사의 목적으로 내세웠다.

2016년 전기소매업 자유화
500곳 이상 업체 등록 마쳐
불교계 전기회사 최초 탄생
지역-사찰 상생에 방점 둬

테라 에너지는 후쿠오카현의 지역에너지 지원회사 ‘미야마 파워 HD’와 연계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전기를 판매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단체들과 협력해 사찰이 소유한 산지에 소규모 수력 발전기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 자체적인 전기생산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재생에너지 증대를 위해 계약자의 희망에 따라 태양광 패널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도 진행한다.



기자회견에서 회사설립 취지와 사업계획을 발표한 관계자와 류고 스님(가운데). 사진출처=산케이 뉴스

전기는 먼저 내년 4월부터 일본 중남부의 추코쿠와 시코쿠지역의 사찰들을 중심으로 판매된다. 이 지역에 소재한 사찰들은 6천 개소가 넘는다, 이 중 현재 테라 에너지의 전기를 사용하겠다고 계약한 절은 28개소다.

테라 에너지측은 “사찰 네트워크를 활용, 각 사찰들과 신도들을 중심으로 판로를 넓힐 것이다. 이를 통해 광고비와 인건비가 절약돼 타 회사들의 일반가정용 전기요금제보다 2~3%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며 경제성이 높은 점을 장점으로 소개했다. 이어 “2년 내에 오사카와 교토등지로 확대, 최종적으로는 일본 전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회사의 운영계획을 밝혔다.

또 테라 에너지는 수익의 일부를 계약한 사찰들 가운데, 경영이 힘든 곳의 개보수와 지역활동을 위한 ‘지역사찰 보조금’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익의 1%를 자살방지 및 자살유가족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류고 스님은 “사찰과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이를 지지하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회사의 경영취지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고야산 진언종, 도쿄서 결연관정 첫 봉행

11월 23일부터 3일간, 예약제도 도입해

1200년 넘게 일본 진언종의 전통으로 내려온 결연관정(結緣灌頂)법회. 오는 11월 말 사상 최초로 도쿄에서 법회를 봉행한다고 지난 10월 23일 ‘산케이 뉴스’가 전했다.

결연관정이란 불보살과 인연을 맺는 밀교의식을 말한다. 관정법회에서 제자는 눈을 가리고 만다라 위로 꽃을 던진다. 꽃이 떨어진 곳에 계신 불보살이 제자와 인연이 있는 본존이 된다. 불보살과 인연을 맺기에 고야산에서 연중 봉행되는 법회들 가운데 가장 위의를 갖춰 봉행하는 법회로 결연관정이 꼽힌다.

고야산 진언종의 총본산 콘코부지 측은 “결연관정은 일본 진언종의 개조인 코보대사가 812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내려왔다”고 말했다. 진언종에서는 코보대사가 11월에 결연관정을 받은 것을 기념해 매년 가을에 결연관정법회를 봉행한다.

콘고부지는 “해마다 많은 참배객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올해부터 예약제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예약제의 도입과 함께 “관정을 받고자 고야산까지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라는 목적으로 사상 최초 도쿄에서 봉행을 결정했다.

오는 11월 23일부터 3일간 봉행되는 결연관정은, 23일 오전 ‘정의결연관정 삼매야계’라는 예비의식으로 시작된다. 그 후 총 28차례에 나누어 비공개로 관정이 진행된다. 콘고부지는 “결연관정은 남녀노소, 종파를 떠나 불보살과 인연을 맺는 귀중한 자리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며 법회의 봉행의의를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고야산 금당에서 결연관정을 봉행 중인 스님들. 사진출처=결연관정 공식트위터 계정

삼보종 창시자 ‘상가락시타’ 별세

지병 앓아 93세 일기로
전 세계 추모물결 이어져

영국 불교 전파자 상가락시타(Sangharakshita)가 93세 나이로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오전 별세했다. 상가락시타는 폐렴과 패혈증 등 지병을 앓았다.

불교 언론 라이언스로어(Lion’s Roar)는 이날 상가락시타의 타계 소식과 함께 생전 그의 업적을 보도했다. 상가락시타는 불교 지도자이자 삼보종(Theravada tradition) 창시자다.

상가락시타는 1925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는 세계 2차 대전 중 아시아로 파병된 것을 계기로, 제대 후 20년 동안 아시아 전역에서 불교를 공부했다. 그는 남방불교에서 상가락시타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불교에 귀의했다. 그 후 그는 다르도 린포체(Dhardo Rinpoche), 키엔체 노르부(Jamyang Khyentse), 두좀 린포체(Dudjom Rinpoche) 등 중국의 티베트 점령으로 인해 인도로 망명한 스님들과 함께 불교를 공부했다.


상가락시타 생전 모습.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특히 상가락시타가 1952년 인도 헌법의 제정자이자 최초 법무장관인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를 만나 초창기 인도 불가촉천민의 불교 개종 운동을 이끈 점은 큰 업적으로 꼽힌다.

인도 카스트제도 하의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난 암베드카르는 상가락시타의 도움으로 불가촉천민들을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시키기 위한 대규모 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1956년 10월 14일 38만명의 불가촉천민이 불교로 개종했고, 그는 6주 후에 사망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상가락시타는 암베드카르의 불가촉천민 사이 불교 운동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끌며 큰 공을 세웠다.

이후 1964년 상가락시타는 영국으로 돌아와 1967년 공정무역 불교 단체인 FWBO를 설립했다. 이 공동체는 당시 젊은 층에게 ‘대항문화’의 일환으로 불교를 전파하는 데 성공하면서 크게 성행했다. 당시 상당한 영국인들을 불교에 입문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상가락시타는 1990년대에 은퇴하고 지도부에서 물러났지만, 영국 불교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 꼽힌다. 삼보종은 26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 불교계도 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유명 명상 지도자 비슈바파니(Vishvapani)는 상가락시타의 사망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가락시타는 나를 불교로 이끈 스승”이라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나는 경외와 사랑 없이 그가 작가로서, 스승으로서, 영적 친구로서 얻은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챙김 치료 전문가 비마라사라 메이슨존(Vimalasara Mason-John)도 “나와 다른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꿔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한다. 특히 나에게 ‘알아차림은 혁명이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라고 회고했다. 이들은 모두 상가락시타의 생전 제자들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몽골, 학생들 할로윈 기념 ‘전면 금지’

불교 등 전통 문화 침체 우려가 원인

몽골이 학생들의 할로윈(Halloween) 기념 행위 및 축제를 전면 금지했다. 몽골의 급진적 경제 발전으로 인해 불교 전통문화를 침식시킨다는 우려가 확산된 것이 그 이유다.

몽골 교육 당국은 지난주 전국 모든 학교에 ‘할로윈 기념 금지’ 방침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월 30일 전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할로윈 분장을 위해 돈을 모으거나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평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할로윈은 공식적으로 지정된 국가 공휴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학교가 올해 할로윈 기념행사를 중단하도록 조직적으로 명령했다.

미국에서 유래한 할로윈은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며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는 축제다. 이 같은 할로윈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성행할 뿐 아니라,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도 점차 인기 있는 축제가 되어 가고 있다. 몽골은 1990년 모스크바가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한 후 그 여파로 급속한 변화를 겪었고,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속적으로 외국인 투자 개방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 문물이 대거 유입됐다.


몽골 교육 당국은 지난주 전국 모든 학교에 ‘할로윈 기념 금지’ 방침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사진출처=thewestAustralian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도 큰 상황이다. 바로 유목민 및 불교문화 등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 것.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워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GM SOFT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